



7주차 | 학습목차

<p>학습목차</p> <p>학습목표</p> <p>학습내용</p>	<p>01. 김활란의 성장 과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제물포와 기독교 · 이화학당 입학 · 이화학당 대학과 <p>02. 김활란의 여성계몽운동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조선 YWCA 연합회 · 미국 유학 후 김활란의 활동 · 농촌계몽운동과 두번째 미국 유학 <p>03. 김활란의 일제 협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사참배 강요와 기독교계 학교의 위기 · 조선 여성의 전쟁 동원 · 김활란의 변명 <p>04. 김활란과 여성 정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김활란 · 국회의원 선거와 낙선 · 김활란의 정치 활동에 대한 평가 	<p>05. 고허경의 성장 과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고허경의 학창시절 · 일본 유학시절 · 미국 유학시절 <p>06. 고허경의 사회사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경성자매원 설립 · 영아원과 가정료 설립 · 고허경의 친일 협력 <p>07. 고허경의 정치 참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교육재건과 국가재건 · 부녀국 초대 국장 · 영국 유엔협회 순회 강연 <p>08. 고허경의 신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대한어머니회 · 서울여자대학교 설립
--	---	---



7주차 |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, 김활란과 고허경

7차시 고황경의 정치 참여



7주차 | 학습목표 7차시. 고허경의 정치 참여


학습목차

학습목표

- 해방 후 교육가이자 행정가로서 고허경의 활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- 한국전쟁 중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했던 고허경의 정치 참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
학습내용

- 교육재건과 국가재건
- 부녀국 초대 국장
- 영국 유엔협회 순회 강연



교육재건과 국가재건

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, 김활란과 고향경 | 7차시 고향경의 정치 참여



해방 후 교육자로서 고향경의 활동

- 1945년 10월
 - 경기여자중학교 교장 취임(“여학교에는 여교장”)
- 1945년 11월
 - 미군정청 학무국 조선교육심의회 중 등등교육 분과위원회 소속

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, 김활란과 고향경 | 7차시 고향경의 정치 참여



해방 후 교육자로서 고향경의 활동

- 1946년
 - 의무교육 실시 건의
- 1946년 봄
 - 교육사절단의 일원으로 미국 방문, 교육 원조 요청

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, 김활란과 고향경 | 7차시 고향경의 정치 참여



해방 후 교육자로서 고향경의 활동

- 1945년 12월
 - 모스크바 3상회의 한국신탁통치 발표
 - 고향경, 반탁운동 참가



부녀국 초대국장

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, 김활란과 고향경 | 7차시 고향경의 정치 참여



미군정 보건후생부 부녀국

- 1946년 9월 14일
 - 미군정법령 제107호 ‘부녀국 설치령’
- 근대적 여성 정책 전담 기구의 시초
- 고향경, 부녀국 초대국장에 임명

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, 김활란과 고향경 | 7차시 고향경의 정치 참여



부녀국의 임무

- 조선인의 사회, 경제, 정치와 문화적 개선에 관하여 정부에 진언
- 조선부인의 지위와 복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그 조사연구의 결과 발표
- 이하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정부에 보고하고 그 표준과 방책 제정

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, 김활란과 고향경 | 7차시 고향경의 정치 참여



부녀국의 임무

- 이하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정부에 보고하고 그 표준과 방책 제정
 - ① 부녀의 노동조건 개선
 - ② 부녀의 직장의 확대
 - ③ 공업, 농업, 교육, 예술 등 직업과 가정에 대한 부인의 복지
 - ④ 관청 사무에 대한 부인의 활동 범위
 - ⑤ 보건, 특히 임부의 보호와 분만

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, 김활란과 고향경 | 7차시 고향경의 정치 참여



부녀국의 임무

- 이하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정부에 보고하고 그 표준과 방책 제정
 - ⑥ 부인의 참정권
 - ⑦ 매소부의 취체와 그 제도의 폐지
 - ⑧ 불량 부녀와 그 교정방법
 - ⑨ 부녀자의 여행에 관한 일반의 보호

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, 김활란과 고향경 | 7차시 고향경의 정치 참여



부녀국의 임무

- 1946년 12월
 - 전국 각 시도에 부녀계를 설치하기 위한 좌담회와 강연회 개최
- 1947년 10월 초
 - 서울시 부녀과 설치를 시작으로 각도에 부녀계 설치

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, 김활란과 고향경 | 7차시 고향경의 정치 참여



초대 부녀국장 고향경의 경상북도 강연

- 조선 5천년사를 통하여 부녀관계에 관한 법령이 처음 만들어졌는데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임신부들을 보호하는 일입니다. 산모가 분만 시기에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료로 분만시킬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.

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, 김활란과 고향경 | 7차시 고향경의 정치 참여



초대 부녀국장 고향경의 경상북도 강연

- “각계 사회단체, 예컨대 교회의 어떤 단체나 각 학교의 동창회나 자모회 등의 부녀들이 애국반을 조직하여 부녀국에 등록하면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며 부녀국의 실행위원회에서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토의할 것입니다. 세계 역사를 살펴볼 때 여성을 극도로 누른 나라는 다 망했으며, 사회에서 당한 여성의 울분이 가정 내로 흘러 들어와서 자녀와 남편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

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, 김활란과 고향경 | 7차시 고향경의 정치 참여



초대 부녀국장 고향경의 경상북도 강연

- 우리나라 여성의 80%가 교육을 받지 못한 현실에서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질들 제 이름조차 쓰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권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러므로 여성들은 참정권을 원하기 전에 먼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선 문맹퇴치를 해야 하며 그 다음으로 똑바른 지도자를 길러야 합니다.”

1946. 12

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, 김활란과 고헌경 | 7차시 고헌경의 정치 참여



공창 폐지 운동

- 1946년 5월
 - 미군정 ‘인신매매금지령’ 및 ‘부녀자의 매매 혹은 그 매매계약의 금지령’ 강조

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, 김활란과 고헌경 | 7차시 고헌경의 정치 참여



공창 폐지 운동

- 1946년 7월
 - 경무부 공안과 여자경찰과 신설(초대국장 고헌경)
 - ‘매춘업 단속’

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, 김활란과 고헌경 | 7차시 고헌경의 정치 참여



공창 폐지 운동

- 1946년 8월
 - 14개 여성단체 ‘폐업공창구제연맹’(위원장 김말봉) 결성
 - “인육시장으로부터 해방된 여성의 구제대책으로 희망원 같은 것을 국가가 설치하여 이들을 정신적, 경제적으로 갱생시켜 구제해 달라”

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, 김활란과 고헌경 | 7차시 고헌경의 정치 참여



부녀국의 계몽 활동

- 1947년, 월간지 《새살림》 발간
- 각종 강습회 개최
- 공창 폐지 입법화 추진



《새살림》 1-7호(1947)

[출처] 현담문고

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, 김활란과 고헌경 | 7차시 고헌경의 정치 참여



공창제 폐지령 공포

- 1947년 11월
 - 공창제 폐지령 공포 “일체의 매춘행위를 금지함”
 - 여성단체와 행정부처가 공조하여 공창 폐지를 실현

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, 김활란과 고헌경 | 7차시 고헌경의 정치 참여



가족계획사업 연구를 위해 도미(渡美)

- 1949년
 - 프린스턴 대학과 컬럼비아 대학에서 1년 동안 연구 수행



영국 유엔협회 순회 강연

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, 김활란과 고헌경 | 7차시 고헌경의 정치 참여



한국전쟁 발발

- 1950년
 - 3개월을 예정하고 떠난 유럽 여행
- 1950년 6월
 - 노르웨이 오슬로 체류 중 한국전쟁 발발 소식

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, 김활란과 고헌경 | 7차시 고헌경의 정치 참여



1950 - 1956년

- 한국전쟁 중 아버지 고명우와 언니 고봉경의 납북
- 고헌경의 순회 강연 활동에 대한 이승만의 지원과 격려

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, 김활란과 고헌경 | 7차시 고헌경의 정치 참여



영국인이 본 한국

- 그들의 의견이 총합되어 유엔의 영국 대표자에게 직접 압력을 주게 되므로 중요한 것이다. 왜냐하면 한국의 장래가 세계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고 그중에서도 영미의 여론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할 때 그들의 한국에 대한 무식과 오해를 간단히 웃어 버릴 수가 없다.

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, 김활란과 고헌경 | 7차시 고헌경의 정치 참여



영국인이 본 한국

- “5년 반 동안 영국의 여러 지역에서 800여 회에 걸친 강연 중에 영국의 청중들이 내게 질문한 것들은 그들의 한국에 대한 무식과 오해와 편견 등을 어느 정도 보여 주고 있는 것이어서 이 글의 제목을 영국인이 본 한국이라고 하여 간단히 설명하려고 한다. 영국인이 한국을 잘 보던지 못 보던지 한국자체가 그들이 내 강연을 들은 청중의 대부분은 영국의 유엔협회 회원들이요,

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, 김활란과 고헌경 | 7차시 고헌경의 정치 참여



영국인이 본 한국

- 우리나라는 지금 마치 사고를 당한 환자처럼 비정상적이며 부득이 남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 걸어 다닐 수 없는 형편이다. 한시도 지체함이 없이 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원상회복을 해야 하며 그러자면 남의 여론에만 지배당하지 말고 우리의 여론도 권위적으로 타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자중하고 실력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.

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, 김활란과 고헌경 | 7차시 고헌경의 정치 참여



영국인이 본 한국

- 우리의 여론도 타국이 인정해주고 추종하고 싶을 만큼 성숙하자면 우리는 우리를 이해하고 또 타국도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. 우리가 영국을 알려면 영국역사를 알아야 하고 행동을 살펴보며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아는 것도 꼭 중요한 일이다.

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, 김활란과 고헌경 | 7차시 고헌경의 정치 참여



영국인이 본 한국

- 그러므로 우리들에 대한 그들이 태도가 만족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들이 우리에게 갖는 태도를 그대로 잘 알지 않으면 그들의 우리들에 대한 태도를 고쳐 줄 수도 없고 선도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을 안다는 것은 큰 힘이 되는 것이다.”

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, 김활란과 고헌경 | 7차시 고헌경의 정치 참여



고황경의 공산주의 비판

- “오늘날 쏘련 공산주의라는 것이 실제로 있어서는 제국주의”
“우리나라 사람을 죽이게 된 총책임은 침략을 감행한 공산당에게 있고 그 침략을 막으려고 와서 싸워주는 미국과 유엔에게는 감사할 것밖에는 없습니다.
만약 당신의 원수가 당신 집에 불을 놓았다고 합시다. 당신은 소방대를 부를 것이고 달려 온 소방대는 당신 집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건지려고 애를 쓰는 중에 몸에 걸리고 발길에 체이는 가구들이 상하지 않겠습니까?”

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, 김활란과 고헌경 | 7차시 고헌경의 정치 참여



고황경의 공산주의 비판

- “오늘날 쏘련 공산주의라는 것이 실제로 있어서는 제국주의”
그러나 그 허물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
불을 놓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을 꺼 주려고 온 사람입니까?
불을 놓은 사람은 스탈린이 아니고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?”

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, 김활란과 고향경 | 7차시 고향경의 정치 참여



1957년 가을

- 민간 외교관 역할을 마치고 귀국

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, 김활란과 고향경 | 7차시 고향경의 정치 참여



다음 차시에서는

- 귀국 후 고향경의 활동과 신념

7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교육, 김활란과 고향경 | 7차시 고향경의 정치 참여



학습정리

- 해방 후 국가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고향경의 정치적 행보

SOURCES



[출처01] 현담문고 <http://www.adanmungo.org/view.php?idx=10495>



기획·조정
이화진·정다영

교안
이유정·윤승희

영상
김록현